

도민체전 대장정... 롤러경기부터 시작

진안소방서 사거리서 운산교차로까지 잇는 도로서 치러

28일부터 30일까지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별 사전경기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진안군 일원서 본 대회 진행

제63회 전북도민체전이 롤러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한다. 진안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도민체전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지며, 선수단의 원활한 경기 운영과 종목별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종목은 본대회에 앞서 사전경기로 진행된다.

첫 사전경기로 열린 롤러 경기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안소방서 사거리에서 운산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도로 구간에서 펼쳐졌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롤러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태권도, 검도, 게이트볼, 농구, 사이클, 소프트테니스, 야구, 유도, 족구, 주짓수 등 다양한 종목의 사전경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진안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도내 각 시·군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들이 진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도 도민체전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진안군은 남은 사전경기과 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및 편의 시설 점검은 물론 대회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선수와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첫 사전경기인 롤러 경기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면서 도민체전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며 "남은 사전경기부터 9월 개최식과 본 경기까지 선수와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12~21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6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익산시청 펜싱팀이 남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영준, 정병찬, 양윤진, 권상우)

익산시청 펜싱팀, 전국무대 '금빛 찰르기'

남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 권영준, 개인전 동메달 획득

익산시청 펜싱팀이 전국 최고 권위 대회에서 메달을 차지하며 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익산시는 '제6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익산시청 펜싱팀이 남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경남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권영준·정병찬·양윤진·권상우 선수가 출전해 탄탄한 조직력과 집중력을 발휘했다. 익산시청 펜싱팀은 예선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팽팽한 승부가 경기 말판까지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단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두며 남자 에페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다. 권영준 선수는 남자 에페 개인전에 출전해 침착한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발휘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선수들이 꾸준한 훈련과 강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값진 성과를 거두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고 익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스포츠단 여자배구팀은 지난 20일 충북 단양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여자대학부 결승전에서 광주여자대학교를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대학 여자배구 '강호' 입증

우석대,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

우석대학교 여자배구팀이 2026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우석대학교 총장 박노준 전주캠퍼스 스포츠단 여자배구팀은 지난 20일 충북 단양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여자대학부 결승전에서 광주여자대학교를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석대는 이번 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5전 전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지난 18일 예선 첫 경기에서 단국대학교를 3-0으로 제압한 우석대는 17일 목포과학대학교에 3-0 완승을 거뒀다. 이어 18일 광주여자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폴세트 점진 끝에 3-2로 승리하며 예선 3전 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우석대는 19일 호남대학교를 3-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예선에서 맞붙었던

광주여대와 다시 만났다. 우석대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3-2로 승리하며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특히 우석대는 이번 대회에서 5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며 여자대학 배구 강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개인상도 잇따랐다. 정민서(체육학과 2년)는 세터상, 신연우(아동사회복지학과 2년)는 블로킹상, 여주희(호텔외식조리학과 1년)는 신인상을 받았다.

또 안수연(체육학과 1년)은 최우수공격상, 박신혜(체육학과 1년)는 리베로상, 이성의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경기남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서로 믿고 하나로 뭉쳐준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며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늘 응원해주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어르신 생활체육 참여 확대

완주군, 스포츠강좌 공모 선정... 3년간 국비 3억원 확보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완주군은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에 발맞춰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추진한다. 지정 스포츠 클럽단인 완주스포츠클럽과 전북풋볼 아카데미가 운동을 맡아 탁구, 태권, 배드민턴, 축구, 풋살 건강운동 등 다양한 종목을 마련한다.

전문 강사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운동을 즐기도록 돕는다.

개인 참여뿐만 아니라 기존 생활체육 동호회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체육활동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가에는 어르신 시니어 체육대회를 열어 강습으로 익힌 기량을 겨루고 참가자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사회적 고립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사업성과와 참여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2027년과 2028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스포츠를 배우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유재복 기자

무주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성과 도내 1위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2025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수혜자 만족도와 △수혜기관 만족도, △수혜자 증가율, △지도자 직무 만족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로, 무주군체육회는 수혜자 만족도에서 14.72점(전북 평균 13.70점), 수혜기관 만족도

5.01점(전북 평균 4.51점), 수혜자 증가율 15.47점(전북 평균 8.39점) 지도자 직무 만족도에서 9.07점(전북 평균 5.53점)을 기록했다.

특히 생활체육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수혜자와 수혜기관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장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이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인 효과로 이어져 호평을 얻었다.

/무주=손흥기 기자

